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평촌신도시의 중심특권을 누리는 3,813세대분양!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7858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9월 12일 (음력 8월 2일) 수요일

# "비엔날레 감독 선임 도움줬다"

## 변양균씨 "신씨 뒤 봐줬다" 조사때 실토…靑, 조사 부인

### 한갑수·이종상씨 조사 불가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씨의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 선임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3면〉

11일 청와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변 전 실장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자체 조사에서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공동예술감독에 선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신정아 파문 직후 나돌던 '외압설'은 사실로 판명돼 가고 있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변 전 실장이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통해 압력을 행사했는 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외압은 없었다'고 주장해 온 한갑수 전 비엔날레 이사장, 신씨를 감독으로 추천한 이종상 서울대 명예교수도 어떤 방법으로든 진실을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 등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별도 배후설'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변 전 실장이 외압행사의 최종 주체인지 밝혀져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위원은 이날 "한갑수 이사장이 감독 선임 전인 7월초 이사들을 개인적으로 불러 신씨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며 "공개적으로 감독 선임을 해야하는데도 이사들을 따로 만나 신씨를 언급해 감독직을 신씨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어 "2차 선정소위에서 표를 많이 얻은 이모 교수를 배제하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는 신씨를 추천한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외압'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한 이사장이 뭔가 무리하게 일을 추진해 청와대 아니면 고위층의 부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언론에 보도된 변 전 실장과 신씨의 관계를 보니 그런 생각이 더욱 강하게 든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자체조사에서 신씨가 광주비엔날레 감독이 되도록 도와준 사실은 시인하면서 동국대 교수로 임용되는 데는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 전 실장은 "신씨가 충분히 교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미술계에서 자리잡았기 때문에 임용 과정에 어떤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천호선 대변인은 11일 "청와대가 신정아씨의 비엔날레 감독 임명 과정에 대해 조사한 적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신정아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이날 변 전 실장의 기획예산처 재직 시절 신씨가 국가예산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예산이 배정된 시점이 변 전 실장이 2003년 기획예산처 차관으로 임명된 직후인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변 전 실장의 또 다른 직권남용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신씨는 2003년부터 성곡미술관에서 근무해왔고 변 전 실장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기획예산처 장·차관을 지냈다.

검찰은 변 전 실장이 신씨와 '가까운 사이'이며 신씨를 비호하려 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변 전 실장이 신씨 개인을 위해 소속 미술관의 사업에 국가예산을 부적절하게 배정하지 않았느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있다.

미술계에는 신씨가 '펀드 레이징의 귀재'로서 전시회 기획 때 인맥을 동원해 다수 대기업으로부터 후원을 유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주변인들에게 친분이 있다는 경제부처 공무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변양균문제 할 말 없게 됐다 정윤재 부적절한 행위 유감"

### 盧대통령 긴급 간담회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신정아씨 연루 의혹'과 관련, "제가 지금 난감하게 됐다"며 "할 말이 없게 됐다"고 고통스러운 심경을 토로했다. 〈관련기사 4면〉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그동안 대체로 제 스스로 판단에 대해 비교적 자신감을 가져왔다"며 "그러나 이번 문제로 제 스스로 판단에 대한 자신이 무너졌다. 무척 당황스럽고, 힘들다"고 말했다.

대국민사과 등 입장 표명과 관련, 노 대통령은 "일부 비서진이 국민에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가 있지만, 전반적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가려지고 결과가 확정이 되면 입장을 정리해서 밝히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정윤재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세무조사 무마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 노 대통령은 "결국 정 전 비서관이 주선한 자리에서 뇌물이 건네졌고, 고위 공무원이 처벌을 받게 됐으니까 그 점은 부적절한 행위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노 대통령은 "저와 그의 관계로 봐서 제가 사과라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지금은 아무 사실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대통합 민주신당 경선 후보들의 참여정부와의 차별화 시도에"졸렬한 전략이자 필패 전략"이라고 비판했으며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에 대한 청와대의 고소와 관련, 정치권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점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한국전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의 남북정상회담 의제화 여부에 대해 "평화협정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라고 생각한다"며 "선언도 있을 수 있고, 협상의 개시도 있을 수 있다. 협상은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는 일련의 협상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마지막 부동표를 잡아라

## 여수 엑스포 2차 국제심포지엄 오늘 개막…외교 총력전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제2차 국제심포지엄이 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과 개최후보지인 여수 일원에서 열린다. 〈관련기사 3면〉

정부와 여수박람회 유치위를 비롯, 전남도·여수시는 이번 심포지엄이 오는 11월 27일 개최지 결정을 위한 BIE(세계박람회기구) 총회를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공식 행사란 점을 감안, 부동표를 흡수하는 데 정부·민간차원의 총력 외교전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등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BIE 회원국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한국 정부의 박람회 개최 의지를 천명할 예정이다.

'지구온난화와 살아있는 바다와 연안'을 주제로 열리는 심포지엄에는 BIE 회원국 장·차관 30여명과 BIE 회원국 대표·의장·사무국 주요 인사 150여명, 국제기구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며, 12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만찬과 함께 5일간의 일정이 시작된다.

이어 13일 오전 9시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회식을 갖고 세계적인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 박사의 개막 연설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앨빈 토플러 박사를 비롯해 2006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무하마드 유누스 박사, 한승수 UN 기후변화 특사, 로세르 탈레스 BIE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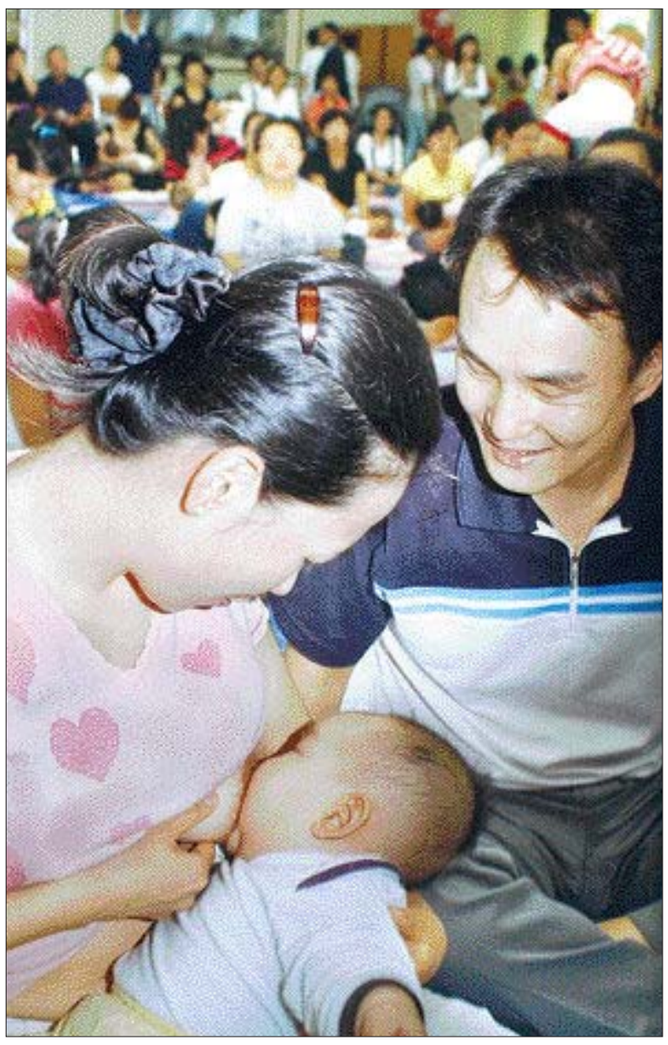
이 밖에도 피터 브리지워터 국제습지조약 사무총장, 에리얼 폭스 국제해양과학발전기구원장 등 환경전문가들이 대거 참가해 해양 환경보전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통해 여수박람회 개최 당위성을 강조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14일까지 서울 일정을 마친 후 15일 여수를 방문, 여수공항 계류장에서 열리는 시민환영대회에 참석한 후 광양제철과 순천만 등 엑스포 개최 후보지 주변 여건을 살피게 된다.

여수시는 시민 1만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촛불퍼레이드를 통해 시민들의 유치 의지를 BIE 회원국 관계자들에게 각인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오는 16일부터 프랑스 헝가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유럽 4개국을 순방하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변화 고위급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11일 공식 발표했다. 한 총리는 특히 프랑스 방문 기간에 BIE 회원국 대표들을 초청하는 한편, 유럽 순방 국가에 여수박람회 유치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



**"모유가 좋아요"** 광주 북구보건소는 11일 오후 북구청 회의실에서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는 생후 6개월까지의 유아 60여명과 엄마·아빠가 참여했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우람하던 창학 67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세계로 힘차게 뛰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jeonnam-tsc.kr